

제3자의 권력과 지위에 따른 사회적 배제행위에 대한 판단

Influence of Power and Status on Social Exclusion

조준형¹ · 이형철² · 김신우^{3†}

JunHyoung Jo¹ · Hyung-Chul O. Li² · ShinWoo Kim^{3†}

Abstract

Power and status are core elements that distinguish social classes and strongly influence social interaction. Although they are the foundation of social influence, they have different origins (Fragale et al., 2011). While power usually is based on personal ability or legal, institutional legitimacy, status is rooted in voluntary support from other people. Hence, whereas people with power often demonstrate egoistic behavior, those with high status show relationship-based altruism (Hasty & Maner, 2020). People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nd have stereotypical beliefs or expectations about the people's behavior with high power or status (Magee, 2009). The current research tested how the judgment on social exclusion, the unique social influence of power and status, changes depending on the actor's power and status. We constructed social exclusion scenarios in which we manipulated actors' power and status and asked participants to rate an actor's pain and behavioral fairness. Participants' ratings showed that the actor's fairness and pain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actor's power and status (Expt. 1),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stereotypes above. In particular, the significant effects of the actor's anonymity in the cases of low power and high status (Expts. 2A, 2B) provide further evidence for the proposal that status but not power originates from voluntary support from others.

Key words: Power, Status, Social Exclusion, Pain

요약

권력과 지위는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들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 둘은 사회적 영향력의 기반이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서로 다른 원천에 의해 발생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Fragale et al., 2011). 권력은 주로 능력이나 법적, 제도적 정당성에 근거하지만 지위는 타인의 자발적인 지지에 근거한다. 따라서 권력자는 자기중심적으로 행위하지만, 지위를 가진 사람은 관계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Hasty & Maner, 2020). 사람들 또한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여 권력과 지위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고정관념 혹은 기대를 가진다(Magee, 2009). 본 연구는 권력 혹은 지위의 중요한 사회적 영향인 사회적 배제 행위에 대한 판단이 행위자의 권력과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행위자의 권력, 지위, 익명성을 조작한 사회적 배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행위자의 고통과 행위 공정성을 평정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권력과 지위에 따라 행위자의 공정성과 고통이 달라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실험 1), 이는 앞서 언급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패턴

※ 이 논문은 2020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¹ 조준형: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박사과정

² 이형철: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3†} (교신저자) 김신우: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 E-mail: shinwoo.kim@kw.ac.kr / TEL: 02-940-5421

을 보였다. 특히 권력이 낮을 때와 지위가 높을 때 익명성에 따른 효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졌으며(실험 2A, 2B) 이는 권력보다는 지위가 타인의 자발적인 지지에 근거한다는 주장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주제어: 권력, 지위, 사회적 배제, 고통

1. 서론

1.1. 권력과 지위

사회계층(social hierarchy)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근본 요소이며 계층 구분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대는 권력(power)과 지위(status)이다(Fiske, 2007; Magee & Galinsky, 2008). 사회계층의 근간인 권력과 지위는 주로 특정 맥락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의 원천으로 다양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Fragale et al., 2011). 높은 권력과 지위를 통해 사람들은 다양한 혜택이나 편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더 높은 권력과 지위를 얻으려 노력한다. 다만, 이들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밖에 없다.

과거 연구에서는 권력과 지위의 두 개념을 아예 구분하지 않거나 혹은 구분하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Blader & Chen, 2012; Fragale et al., 2011). 어떤 연구들에서는 권력과 지위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었고(Dubois et al., 2012; Hall et al., 2005; Smith et al., 2008), 권력과 지위를 각자 독립적인 개념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Galinsky et al., 2003; Fragale et al., 2009). 그러나 권력과 지위 수준에 따라 활용하는 정보, 행동 특성, 선호하는 제품 등의 다양한 측면이 달라진다는 것(Blader & Chen, 2012)은 두 개념이 명백하게 구별되는 심리적 차원임을 방증한다.

기존 연구들은 권력과 지위의 개념을 일관성있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두 개념에 대한 정의와 구분에 대한 합의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e.g., Fragale et al., 2011; Fiske & Berdahl, 2007; Overbeck, 2010). 권력이란 개인이 가치 있는 자원의 배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Fragale et al., 2011; Smith & Magee, 2015). 권력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목표 추구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부정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데, 권력은 이러한 사회

적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권력은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linsky et al., 2008; Hasty & Maner, 2020; Keltner et al., 2003). 또한 권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을 목표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보게 만들고(Gruenfeld et al., 2008),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을 떨어뜨리며(Galinsky et al., 2006), 경쟁상황에서 더 이기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다(Magee et al., 2007).

지위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높이 평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Fragale et al., 2011; Smith & Magee, 2015). 권력이 자신의 내적 관심에 집중하도록 한다면, 지위는 자신의 외부에 관심을 두게 한다(Blader & Chen, 2012). 이는 지위의 획득 과정에서 기인하는데, 지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Van Vugt et al., 2008). 지위는 권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하기 쉬우며, 따라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써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Maner, 2017). 지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Blader et al., 2016),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사회적 단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며(Foulsham et al., 2010), 더 좋은 성과가 아니라 인기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고(Case et al., 2018), 더 이타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Griskevicius et al., 2010).

권력과 지위는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기반은 크게 다르다(Fragale et al., 2011). 권력은 어디까지나 가치 있는 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발생하며, 근본적으로 타인의 동의가 필요조건은 아니다. 반면 지위는 지위를 가진 사람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지위의 발생에는 타인의 암묵적 동의가 필요조건이며, 지위를 부여하는 주체는 제3자인 타인들이다. 따라서 권력과 달리 지위 유지를 사람들의 여론

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타인들 역시 권력과 지위의 수준에 맞추어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일종의 고정관념 혹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고(Magee, 2009), 규범을 더 자주 위반할 것이라고 평가한다(Van Kleef et al., 2011). 또한 지위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발언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Ames et al., 2010).

요약하자면, 권력과 지위는 서로 다른 원천에 의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행위자의 사회적 행동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제3자 즉 타인들은 권력 및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행동 양식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기대를 가진다.

1.2. 사회적 배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집단에 소속되려는 근본욕구를 가지는데, 이러한 욕구가 여러 이유들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고 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사회적 배제는 단순한 친목 활동에서부터 승진, 채용, 해고 등 인생사에서 중요한 것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이다(Duclos et al., 2012; Nezlek et al., 2012). Lee(2018)가 수행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총 참가자 1087명 중 과반수가 넘는 558명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배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사회적 배제 상태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의 감소, 공격성 증가, 우울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Twenge et al., 2007). 사회적 배제는 배제를 당하는 사람 외의 주변인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인식되어(Chen et al., 2014), 집단 혹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사회적 배제는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제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유발한다(Chen et al., 2014). 즉, 사회적 배제는 배제를 수행하는 사람, 배제의 대상, 그리고 주변인들에게도 광범위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권력과 지위는 사회적 영향력의 원천으로 사회적 배제 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력은 승진, 채용, 처벌적 행위 등에 관여함으

로써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위 역시 단순한 친목관계나 또래집단에서의 차별 등에 작용할 수 있고, 종교나 정치집단에서의 낙인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실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1.3. 현재의 연구

기존 연구들은 권력과 지위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했으며, 권력과 지위는 특히 사회적 배제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에 더하여 사람들은 특정수준의 권력 혹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 혹은 고정관념을 가진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특히 범주 응집성이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심리적 본질주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지적 편향이다(Kim et al., 2021; Lee et al., 2020). 그런데, 이러한 고정관념이 행위자의 권력과 지위 수준에 따른 사회적 배제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사회적 배제가 일상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며 권력과 지위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배제행위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권력과 지위를 가진 행위자가 경험하는 고통과 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제3자 판단을 검증했다.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권력과 지위에 따른 행위자의 고통 및 공정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는 행위자에게도 고통을 수반하는데(Chen et al., 2014), 이는 사회적 배제가 도덕적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수행한 사람은 도덕적 자기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Poon & Chen, 2015) 이를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 배제행위에 공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지위가 높은 경우 높은 수준의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평판손실을 막기위해 공정한 준거를 통해 배제행위를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타인들도 그러한 모습을 기대할 것이다. 반면, 권력은 자기 중심성을 촉진하며 공감능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고통도 적게 느낄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노력도 적게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제3자 역시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1에서는 권력과 지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행위자의 고통과 공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행위자에 대한 참가자들(즉, 제3자)의 판단을 요청했다.

2. 실험 1

2.1. 방법

2.1.1. 연구설계

2(권력: 고권력, 저권력) × 2(지위: 고지위, 저지위) × 2(시나리오: 국제봉사기구, 신문사)의 참가자 간 요인설계를 사용했다.

2.1.2. 참가자

총 128명의 대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요인설계 조합으로 구성된 8개의 조건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어 설문에 참여했으며, 불성실 응답자 4명을 제외하여 124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2.1.3. 측정도구

사회적 배제 시나리오. 참가자간 요인설계에 따라 총 8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시나리오의 내용적 특성이 참가자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제봉사기구와 신문사라는 두 가지 맥락의 시나리오를 사용했다. 다만 통제를 위해 배경 상황의 차이를 제외한 전체적인 시나리오의 구조는 동일하게 구성했다. 각 시나리오의 전반부에서는 어떤 인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행위자의 권력과 지위를 조작했다. 고권력은 해당 인물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 자원을 통제하는 모습을 묘사하여 조작했으며, 고지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저권력과 저지위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서술했다. 시나리오의 후반부에서는 이 인물이 조직의 구성원들 중 한명에 대해 사회적 배제를 수행하는 모습으로 서술했다. 이는 Chen et al.(2014)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를 약간 변형한 것이었다. Appendix에 고권력-고지위 조건에서의 국제봉사기구 시나리오를 예시로 제시했다.

고통. 행위자의 고통에 대한 제3자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Wong & Whaley, 1986)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측정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6점 척도의 각 점수에 서로 다른 수준의 고통을 표현하는 여섯 개의 얼굴이 제시된다. 가장 왼쪽은 웃는 표정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그러진 표정이 나타난다. 참가자들은 행위자가 사회적 배제를 수행할 때 경험하는 고통 수준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얼굴을 선택했다(0: 아프지 않음, 5: 가장 심하게 아픔).

공정성. 행위자가 사회적 배제행위를 얼마나 공정하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판단을 측정했다. 참가자들은 “○○가 수상자들 중 한 명을 제외할 때, 얼마나 공정하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7점 척도에 응답했다(1: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함, 7: 아주 공정하게 결정함).

상호작용 경험, 지배력, 따뜻함. Fragale et al.(2011)은 행위자의 권력과 지위에 따라 상호작용 경험, 지배력, 따뜻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짐을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조작한 권력 및 지위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 세 변인을 측정했다.

상호작용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와 어떤 활동을 함께 하게 된다면, 그 경험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점 척도(1: 아주 부정적, 7: 아주 긍정적)로 응답하도록 요청했다. 지배력, 따뜻함을 측정하기 위해 “○○는 지배적이며 주도적이다”, “○○는 따뜻하고 협력적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7점 척도(1: 전혀 반영하지 못함, 7: 아주 잘 반영함)에 응답하도록 했다.

조작 점검. 시나리오를 통한 권력 및 지위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조작점검 문항을 포함했다. 참가자들은 “○○는 조직 내 중요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 “○○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존중받고, 높이 평가된다”라는 진술에 7점 척도로 응답했다(1: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아주 강하게 동의함).

2.1.4. 실험절차

참가자들은 설문에 대한 간단한 안내문을 확인한 뒤, 시나리오를 읽고 설문문항에 응답하는 순서로 실험에 참여했다. 각 참가자들은 참가자간 요인설계에 따라 구성된 총 8개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읽었으며, 바로 아래

에 제시된 문항에 하나씩 응답했다. 설문 문항 위에 시나리오를 배치하여 필요한 경우 참가자들이 시나리오를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2.2. 결과 및 논의

모든 종속변인에서 시나리오(국제봉사기구, 신문사)에 따른 참가자의 반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결과를 통합해 분석했다.

2.2.1. 조작 점검

권력조작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고권력 조건($M=5.74$, $SD=1.15$)의 참가자들은 저권력 조건($M=2.79$, $SD=1.23$)보다 행위자의 자원 통제력이 더 높다고 반응했다, $t(122)=13.72$, $p<.001$. 마찬가지로, 고지위 조건($M=5.87$, $SD=.91$)에서 참가자들은 저지위 조건($M=1.64$, $SD=.66$)보다 행위자가 존중받고 높게 평가된다고 반응했다, $t(122)=29.66$, $p<.001$. 이 결과들은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한 권력과 지위 조작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2.2. 상호작용 경험 지배력, 따뜻함

권력과 지위 수준이 상호작용 경험, 지배력, 따뜻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 x 2 참가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에 대한 권력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120)=.86$, $p=.36$. 반면, 고지위 조건($M=5.82$, $SE=.11$)에서 참가자들은 저지위 조건

($M=2.00$, $SE=.11$)보다 경험을 더 긍정적일 것이라 평가했다, $F(1,12)=576.35$, $p<.001$. 권력과 지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0$.

행위자의 지배력에 대해서는 권력과 지위 모두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고권력 조건($M=5.04$, $SE=.18$)에서 참가자들은 저권력 조건($M=2.73$, $SE=.18$)보다 지배력, 주도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F(1,120)=85.29$, $p<.001$. 반대로, 저지위 조건($M=4.22$, $SE=.18$)에서 참가자들은 고지위 조건($M=3.56$, $SE=.18$)보다 참가자들은 더 높은 평가를 내렸다, $F(1,120)=7.0$, $p<.01$. 두 변인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0$.

행위자의 따뜻함에 대해서도 권력과 지위 모두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저권력 조건($M=3.71$, $SE=.14$)에서 참가자들은 고권력 조건($M=3.06$, $SE=.14$)보다 따뜻함, 협력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F(1,120)=10.89$, $p<.001$. 반대로, 고지위 조건($M=5.05$, $SE=.14$)에서 참가자들은 저지위 조건($M=1.72$, $SE=.14$)보다 참가자들은 더 높은 평가를 내렸다, $F(1,120)=282.48$, $p<.001$. 권력과 지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F(1,120)=11.69$, $p=.001$, 이는 권력이 낮고 지위가 높을 때 행위자를 더 따뜻하고 협력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들은 기존연구(e.g., Fragale et al., 2011)의 결과들과 유사한 것으로 본 실험의 시나리오가 권력과 지위의 일반적인 특징을 잘 보여줌을 의미한다.

2.2.3. 고통

Fig. 1A는 사회적 배제를 수행할 때 행위자의 권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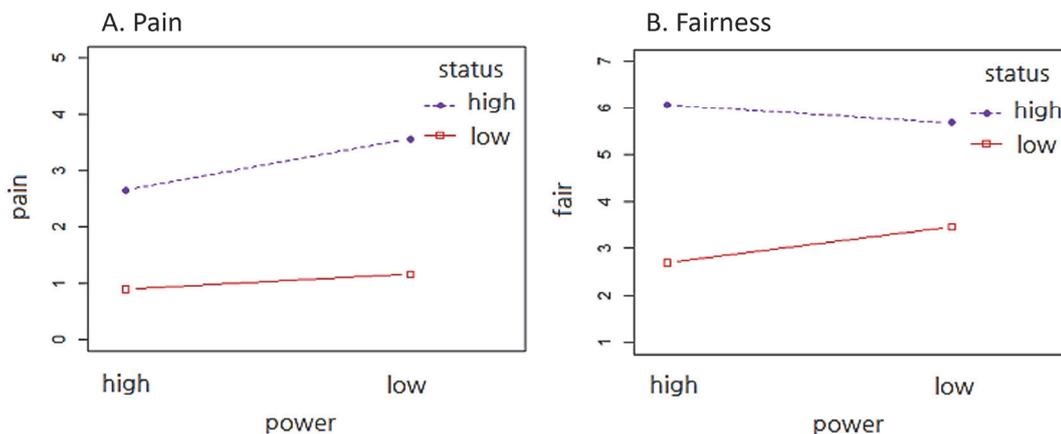


Fig. 1. Pain (A) and fairness (B) as a function of power and status in Expt. 1

지위에 따라 고통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2(권력) × 2(지위) 참가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행위자의 고통은 저권력 조건($M=2.36$, $SE=.14$)의 참가자들이 고권력 조건($M=1.77$, $SE=.14$)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F(3, 120)=8.85$, $p=.004$. 반대로, 고지위 조건($M=3.10$, $SE=.14$)에서 참가자들은 저지위 조건($M=1.03$, $SE=.14$)보다 행위자가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F(3, 120)=109.56$, $p<.001$. 권력과 지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3, 120)=2.74$, $p=.10$.

앞서 권력과 지위는 사회적 배제에 따른 고통에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권력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지위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Hasty & Maner, 2020). 따라서 제3자인 참가자들은 사회적 배제에서 권력이 낮거나 지위가 높을 때 더 높은 고통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했음을 알 수 있다(e.g., Fragale et al., 2011; Hasty & Maner, 2020).

2.2.4. 공정성

Fig. 1B는 행위자의 권력과 지위에 따라 사회적 배제를 얼마나 공정하게 수행했을 지에 대한 제3자 판단을 보여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2(권력) × 2(지위) 참가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고권력($M=4.38$, $SE=.15$)과 저권력($M=4.57$, $SE=.14$)에 따른 공정성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F(3, 120)=.83$, $p=.36$. 반면 고지위 조건($M=5.88$, $SE=.14$)에서 저지위 조건($M=3.08$, $SE=.15$)보다 행위자가 사회적 배제를 공정하게 수행했을 것이라 판단했다, $F(3, 120)=186.02$, $p<.001$. 마지막으로 권력과 지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 $F(1,120)=7.56$, $p=.007$.

이 결과는 높은 지위일수록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평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위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제안과 일치한다. 아울러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고권력-고지위 조건($M=6.07$, $SE=.20$)에서 참가자들은 가장 공정할 것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는 행위자가 선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을 때 공정성을 실천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권력-저지위 조건($M=2.70$,

$SE=.21$)에서 가장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은 이와 반대의 경우일 것이다.

3. 실험 2A, 2B

실험 1은 권력과 지위 수준에 따라 사회적 배제를 수행하는 사람의 고통과 행위 공정성에 대한 제3자 판단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이는, 첫째, 사회적 배제가 당사자에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행위자 역시 알고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며, 둘째, 사회적 배제가 행위자의 평판에 대한 염려를 유발한다고 믿기 때문이다(Poon & Chen, 2015; Sjastad et al., 2021). 그런데, 행위자의 평판손상은 사회적 배제가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배제 행위의 익명성 혹은 공개 여부에 따라 행위자의 고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배제 행위의 공개여부는 행위자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권력이 높거나 지위가 낮을 때 영향이 적고, 권력이 낮거나 지위가 높을 때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제3자 또한 이러한 암묵적 고정관념 혹은 믿음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에서 익명성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2A, 2B를 실시했다. 실험 2A에서는 권력과 익명성을, 실험 2B에서는 지위와 익명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행위자의 고통과 공정성에 대한 제3자 판단을 검증했다.

3.1. 방법

3.1.1. 연구설계

실험 2A, 2B 모두 시나리오(국제봉사기구, 신문사)는 참가자간 요인으로 설계했다. 권력과 익명성(실험 2A)과 지위와 익명성(실험 2B)은 각 요인별 두 수준을 가지는 참가자내 요인설계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실험 2A의 참가자들은 특정 시나리오 조건에서 2(고권력, 저권력) × 2(익명, 공개)으로 구성된 4개의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읽고 설문에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실험 2B의 참가자들도 특정 시나리오 조건에서 2(고지위, 저지위) × 2(익명, 공개) 조합으로 구성된 4개의 시나리

오에 차례로 응답했다. 실험 2A, 2B의 자극 제시순서는 라틴방형(latin square)을 사용하여 참가자내 요인조합의 제시순서를 결정했다.

3.1.2. 참가자

실험 2A, 2B에 각 56명씩, 총 112명의 대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했다. 각 실험의 참가자들은 두가지 시나리오 상황 및 라틴방형에 의해 구성된 네 가지 제시순서에 동일한 숫자로 무선 할당되었다.

3.1.3. 측정도구

사회적 배제 시나리오. 각 실험에서 사용한 시나리오오는 독립변인 조작 이외에는 실험 1과 대체로 유사하게 구성했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전반부에는 어떤 인물의 권력(실험 2A) 혹은 지위(실험 2B)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서술했다. 시나리오 중반부에는 이 인물이 사회적 배제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실험 1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술했고, 후반부에는 익명성에 대한 서술을 추가했다.

공개 조건에서는 해당 인물이 사회적 배제 행위를 수행한 것이 집단 구성원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명시했으며, 익명 조건에서는 누가 그러한 행위를 수행했는지는 전혀 알수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명확하게 서술했다.

Appendix에 국제봉사기구의 저권력-공개(실험 2A), 저지위-익명(실험 2B)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고통 및 공정성. 핵심 변인인 행위자의 고통과 배제의 공정성 문항은 실험 1과 동일하게 구성했다.

조작 점검. 실험 2A, 2B에서 추가한 익명성 변인에 대한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은 수상자들 중 한 명을 탈락시킨 것이 ○○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7점 척도(1: 전혀 몰랐을 것임, 7: 확실히 알았을 것임)로 응답하도록 했다.

3.1.4. 절차

참가자들은 설문에 대한 간단한 안내문을 확인한 뒤, 시나리오를 읽고 문항에 응답하는 순서로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 2A, 2B 모두 총 4개의 시나리오를 라틴방형에 따라 제시했으며, 참가자들은 각 시나리오의 아래에 제시된 문항에 응답했다.

3.2. 결과 및 논의

실험 2A, 2B에서 모두 시나리오 및 제시순서에 따른 종속변인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결과를 통합해 분석했다.

3.2.1. 조작 점검

익명성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했다. 실험 2A에서 참가자들은 익명성 조건($M=2.02$, $SD=.71$)보다 공개 조건($M=6.09$, $SD=.77$)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배제 행위를 타인들이 알았을 것이라 반응했다, $t(55)=25.97$, $p<.001$. 마찬가지로 실험 2B에서도 참가자들은 익명성 조건($M=2.08$, $SD=.95$)보다 공개 조건($M=5.90$, $SD=.84$)에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t(55)=24.87$, $p<.001$. 이 결과들은 익명성 조작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3.2.2. 고통

Fig. 2A는 사회적 배제를 수행할 때 행위자의 권력과 익명성에 따라 고통수준이 달라짐을 보여준다(실험 2A). 통계적 검증을 위해 2(권력) × 2(익명성) 참가자내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행위자의 고통이 저권력 조건($M=2.51$, $SE=.12$)에서 고권력 조건($M=1.24$, $SE=.11$)보다 더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F(1, 55)=67.38$, $p<.001$. 또한 공개 조건($M=2.43$, $SE=.11$)에서 익명성 조건($M=1.32$, $SE=.11$)보다 고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 $F(1, 55)=62.04$, $p<.001$. 권력과 익명성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 $F(1, 55)=59.63$, $p<.001$. 이는 저권력-공개($M=3.59$, $SE=.17$)에서 높은 고통을 예측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써 권력이 낮은 자가 배제행위를 할 때 공개되는 것을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는 판단을 보여준다.

Fig. 2B는 행위자의 지위와 익명성에 따라 고통수준이 달라짐을 보여준다(실험 2B). 특히 이 패턴은 Fig. 2A와 반대 양상을 보이며 권력과 지위가 서로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2(지위) × 2(익명성) 참가자내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저지위($M=.91$, $SE=.13$)보다 고지위($M=2.71$, $SE=.12$)일 때 행위자가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으로 판단했다, $F(1, 55)=207.26$, $p<.001$. 또한 공개 조

건($M=2.16, SE=.12$)에서 익명성 조건($M=1.46, SE=.12$)보다 고통이 더 클것으로 판단했다, $F(1, 55)=36.14, p<.001$. 지위와 익명성이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 $F(1, 55)= 27.41, p<.001$. 이 상호작용은 저지위 조건에서는 공개여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92 vs. .89) 고지위 조건에서 공개 여부에 따라 고통 수준이 달라질것으로 판단(3.39 vs. 2.04)한 것에 기인한다(Fig. 2B). 이는 권력과 달리 지위가 타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평판 훼손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다 (e.g., Maner, 2017; Van Vugt et al., 2008).

3.2.3. 공정성

배제 행위의 공정성은 행위자의 고통과 높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통이 클수록 더 공정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배제행위에 수반하는 심적 고통(e.g., Chen et al., 2014)을 덜 수 있는 가장 즉각

적인 방법이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즉 공정하게 사회적 배제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험 2A의 고통(Fig. 2A)과 공정성(Fig. 3A)의 상호작용 패턴이 유사하며 실험 2B의 고통(Fig. 2B)과 공정성 (Fig. 3B)도 서로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Fig. 3A는 사회적 배제를 수행할 때 권력과 익명성에 따른 고통수준에 대한 예측을 보여준다(실험 2A). 통계적 검증을 위해 2(권력) × 2(익명성) 참가자내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행위자의 공정성이 저권력 조건($M=5.40, SE=.10$)에서 고권력 조건($M=4.87, SE=.13$)보다 더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F(1, 55)=14.51, p<.001$. 또한 공개 조건($M=5.38, SE=.09$)에서 익명성 조건($M=4.88, SE=.13$)보다 고통이 더 클것으로 판단했다, $F(1, 55)=11.67, p=.001$. 권력과 익명성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 $F(1, 55)=9.77, p=.003$. 이는 저권력-공개 조건($M=5.88, SE=.15$)에서 높은 공정성을 예측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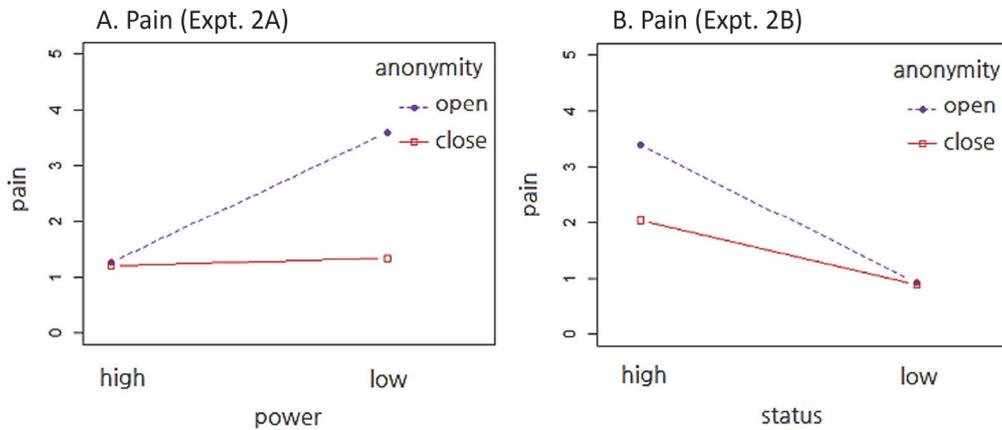


Fig. 2. Pain ratings as a function of power and anonymity (A) vs. status and anonymity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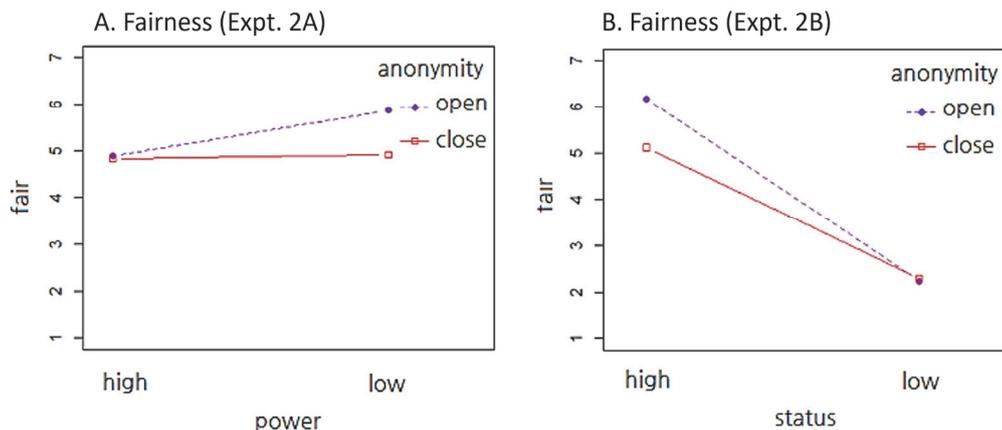


Fig. 3. Fairness ratings as a function of power and anonymity (A) vs. status and anonymity (B)

에 기인한 것으로 권력이 낮은 사람이 배제행위를 수행할 때 더욱 공정할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준다.

Fig. 3A의 공정성에 대한 결과는 Fig. 2A의 고통에 대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배제에 따른 심적 고통이 공정성을 위한 노력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 3B는 행위자의 지위와 익명성에 따라 공정성이 달라짐을 보여준다(실험 2B). 이 결과는 Fig. 3A와 반대되는 패턴을 보여 권력과 지위의 영향이 확연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2(지위) × 2(익명성) 참가자내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고지위($M=5.65$, $SE=.12$)일 때 저지위($M=2.28$, $SE=.12$)보다 더 공정할 것으로 판단했다, $F(1, 55)=449.06$, $p<.001$. 또한 참가자들은 익명일 때($M=3.71$, $SE=.10$)보다 행위가 공개되었을 때($M=4.21$, $SE=.12$) 더 공정할 것으로 평가했다, $F(1, 55)=14.81$, $p<.001$. 지위와 익명성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미했다, $F(1, 55)=20.59$, $p<.001$. 이 상호작용은 저지위 조건에서는 공개 혹은 익명에 따른 공정성 차이가 거의 없으나(2.25 vs. 2.30) 고지위 조건에서 공개-익명에 따른 차이(6.18 vs. 5.13)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Fig. 3B).

이 결과는 특히 고지위에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우려해 공개 조건에서 더욱 공정하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e.g., Case et al., 2018; Maner, 2017).

4. 종합논의

사회계층 구분의 핵심 요소인 권력과 지위는 사회적 행위와 상호작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Fiske, 2007; Magee & Galinsky, 2008). 기존 연구들에서는 권력과 지위를 구분하지 않거나 혹은 이 둘을 암묵적으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Blader & Chen, 2012; Fragale et al., 2011) 최근 두 개념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력과 지위의 중요한 차이점은 영향력을 부여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권력은 누군가가 가치 있는 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며 권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타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Smith & Magee, 2015). 반면 지위는 타인의 지지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가

철회되는 경우 지위는 쉽게 사라져 버린다(Van Vugt et al., 2008).

이러한 사실은 권력과 지위 간의 차이를 만든다. 지위를 위해서는 타인의 지지 자체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지위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반면 권력을 위해서는 타인의 지지가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자는 타인에게 관심을 둘 이유가 적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지위를 가진 사람은 관계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Blader & Chen, 2012). 타인 역시 권력 및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리라는 일종의 고정관념 혹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Ames et al., 2010; Magee, 2009; Van Kleef et al., 2011), 이러한 사전지식 혹은 기대가 권력 혹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권력과 지위에 따른 사회적 행위인 사회적 배제에 대해 제3자 인식을 검증하고자 했다.

실험 1에서는 사회적 배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행위자의 권력과 지위 수준을 조작했다. 참가자들은 각 시나리오에서 행위자의 사회적 배제에 따른 고통과 공정성을 추정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권력이 높을 때, 특히 고권력-저지위 조건에서 고통이 낮을 것이라 판단하며 공정성 또한 가장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위가 높을 때는 오히려 고통이 높고 행위의 공정성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결과를 획득했다(Fig. 1).

이 결과들은 사회적 배제가 행위자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이것이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Sjastad et al., 2021). 즉, 지위의 영향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특히 권력이 낮을 때 높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권력이 없는 경우 평판손상이 스스로에게 더 큰 현실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행위의 익명성을 조작한 실험 2A, 2B를 실시했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행위의 익명성과 권력(실험 2A) 혹은 지위(실험 2B)를 조작하여 사회적 배제에 수반하는 고통과 행위의 공정성을 평정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권력과 지위는 반대 패턴을 보였다.

먼저, 실험 2A, 2B 모두에서 익명성은 고통과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참가자들은 공개조건일 때 행위자가 더 고통스럽고 또 더 공정하게 행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패턴은 권력과 지위에 따라 반대양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실험 2A에서는 권력이 낮을 때 공개조건에서 고통을 크게 경험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험 2B에서는 지위가 높을 때 공개조건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으로 판단했다(Fig. 2). 이는 사회적 배제에 수반하는 평판훼손이 미래의 불이익에 대한 예측때 문임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가 된다. 다음으로, 실험 2A에서는 권력이 낮을 때 공개조건에서 더 공정할 것이라고 나타난 반면, 실험 2B에서는 지위가 높을 때 공개조건에서 공정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결과를 획득했다(Fig. 3). 이는 공정함은 평판훼손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방편으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권력이 낮은 경우 행위가 공개되었을 때의 반발 등을 피하기 위해 공정하게 행위했을 수 있다. 반면, 지위가 높을 때 자신의 행위가 공개될 경우 지위 자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함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것으로 추측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들은 본 연구의 예측들을 전반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몇 가지 이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권력과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연구들에서는 권력과 지위를 전혀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더라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Blader & Chen, 2012; Fragale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권력과 지위에 따라 사회적 배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매우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는 사람들이 권력과 지위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 권력과 지위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 관계라는 틀 안에서 각자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며, 제3자 역시 권력 및 지위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이 행위자의 권력과 지위에 따른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서

로 다른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제3자의 사회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했다.

셋째, 우리의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사회적 배제를 당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를 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 배제가 그것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행위자가 가진 특성(특히, 권력과 지위)에 따라 사회적 배제 행위가 다르게 지각됨을 보여준다.

REFERENCES

- Ames, D. R., Bianchi, E. C., & Magee, J. C. (2010). Professed impressions: What people say about others affects onlookers' perceptions of speakers' power and warmth.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1), 152-158. DOI: 10.1016/j.jesp.2009.09.011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DOI: 10.1037/0033-2909.117.3.497
-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Twenge, J. M. (2005). Social exclus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589-604. DOI: 10.1037/0022-3514.88.4.589
- Blader, S. L., & Chen, Y. R. (2012). Differentiating the effects of status and power: A justice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5), 994-1014. DOI: 10.1037/a0026651
- Blader, S. L., Shirako, A., & Chen, Y. R. (2016). Looking out from the top: Differential effects of status and power on perspective ta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6), 723-737. DOI: 10.1177/0146167216636628
- Case, C. R., Bae, K. K., & Maner, J. K. (2018). To lead or to be liked: When prestige-oriented leaders

- prioritize popularity over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5(4), 657-676. DOI: 10.1037/pspi0000138
- Chen, Z., Poon, K. T., Bernstein, M. J., & Teng, F. (2014). Rejecting another pains the self: The impact of perceived future reje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0(1), 225-233. DOI: 10.1016/j.jesp.2013.10.007
- Dubois, D., Rucker, D. D., & Galinsky, A. D. (2012). Super size me: Product size as a signal of statu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8(6), 1047-1062. DOI: 10.1086/661890
- Duclos, R., Wan, E. W., & Jiang, Y. (2013). Show me the honey!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financial risk-tak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1), 122-135. DOI: 10.1086/668900
- Fiske, S. T., Cuddy, A. J., & Glick, P. (2007).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cognition: Warmth and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2), 77-83. DOI: 10.1016/j.tics.2006.11.005
- Foulsham, T., Cheng, J. T., Tracy, J. L., Henrich, J., & Kingstone, A. (2010). Gaze allocation in a dynamic situation: *Effects of social status and speaking*. *Cognition*, 117(3), 319-331. DOI: 10.1016/j.cognition.2010.09.003
- Fragale, A. R., Overbeck, J. R., & Neale, M. A. (2011). Resources versus respect: Social judgments based on targets' power and status posi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4), 767-775. DOI: 10.1016/j.jesp.2011.03.006
- Fragale, A. R., Rosen, B., Xu, C., & Merideth, I. (2009). The higher they are, the harder they fall: The effects of wrongdoer status on observer punishment recommendations and intentionality attribu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8(1), 53-65. DOI: 10.1016/j.obhdp.2008.05.002
- Galinsky, A. D., Gruenfeld, D. H., & Magee, J. C. (2003). From power to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3), 453-466. DOI: 10.1037/0022-3514.85.3.453
- Galinsky, A. D., Magee, J. C., Gruenfeld, D. H., Whitson, J. A., & Liljenquist, K. A. (2008). Power reduces the press of the situation: Implications for creativity, conformity, and disso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6), 1450-1466. DOI: 10.1037/a0012633
- Galinsky, A. D., Magee, J. C., Inesi, M. E., & Gruenfeld, D. H. (2006). Power and perspectives not taken. *Psychological Science*, 17(12), 1068-1074. DOI: 10.1111/j.1467-9280.2006.01824.x
- Griskevicius, V., Tybur, J. M., & Van den Bergh, B. (2010). Going green to be seen: Status, reputation, and conspicuous conser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3), 392-404. DOI: 10.1037/a0017346
- Gruenfeld, D. H., Inesi, M. E., Magee, J. C., & Galinsky, A. D. (2008). Power and the objectification of social targe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111-127. DOI: 10.1037/0022-3514.95.1.111
- Hall, J. A., Coats, E. J., & LeBeau, L. S. (2005). Nonverbal behavior and the vertical dimension of social relation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98-924. DOI: 10.1037/0033-2909.131.6.898
- Hasty, C., & Maner, J. K. (2020). Power, status, and social judgment.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33(1), 1-5. DOI: 10.1016/j.copsyc.2019.06.007
- Keltner, D., Gruenfeld, D. H., & Anderson, C. (2003). Power, approach, and inhibition. *Psychological Review*, 110(2), 265-284. DOI: 10.1037/0033-295X.110.2.265
- Kim, S., Jo, J., & Li, H-C. O. (2021). Psychological Essentialism and Category Representation (심리적 본질주의와 범주표상).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32(2), 55-73. DOI: 10.19066/cogsci.2021.32.2.001
- Lee, G. (2018). Key The Key to Leisure is Human Relationships: Social Exclusion, Active Leisure, and Passive Leisure (여가는 사이에 있다: 사회적 배제, 적극적 여가, 그리고 소극적 여가).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42(3), 1-11. DOI: 10.26446/kjlrp.2018.9.42.3.1
- Lee, G., Li, H-C. O., & Kim, S. (2020). Effect of

- Interaction between the Base-rate and Category Coherence on Property Generalization (범주 응집성과 기저율의 상호작용이 속성 일반화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Cognitive & Biological Psychology*, 32(1), 1-19. DOI: 10.22172/cogbio.2020.32.1.001
- Lee, J., & Shrum, L. J. (2012). Conspicuous consumption versus charitable behavior in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A differential needs explan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3), 530-544. DOI: 10.1086/664039
- Magee, J. C. (2009). Seeing power in action: The roles of deliberation, implementation, and action in inferences of pow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1), 1-14. DOI: 10.1016/j.jesp.2008.06.010
- Magee, J. C., & Galinsky, A. D. (2008). 8 social hierarchy: The self-reinforcing nature of power and status.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2(1), 351-398. DOI: 10.5465/19416520802211628
- Magee, J. C., Galinsky, A. D., & Gruenfeld, D. H. (2007). Power, propensity to negotiate, and moving first in competitive intera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2), 200-212. DOI: 10.1177/0146167206294413
- Maner, J. K. (2017). Dominance and prestige: A tale of two hierarch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6(6), 526-531. DOI: 10.1177/0963721417714323
- Molden, D. C., Lucas, G. M., Gardner, W. L., Dean, K., & Knowles, M. L. (2009). Motivations for prevention or promotion following social exclusion: Being rejected versus being ignor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2), 415-431. DOI: 10.1037/a0012958
- Nezlek, J. B., Wesselmann, E. D., Wheeler, L., & Williams, K. D. (2012). Ostracism in everyday lif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6(2), 91-104. DOI: 10.1037/a0028029
- Nezlek, J. B., Wesselmann, E. D., Wheeler, L., & Williams, K. D. (2015). Ostracism in everyday life: The effects of ostracism on those who ostraciz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5(5), 432-451. DOI: 10.1080/00224545.2015.1062351
- Poon, K. T., & Chen, Z. (2015). How does the source of rejection perceive innocent victim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5(5), 515-526. DOI: 10.1080/00224545.2015.1061972
- Sjastad, H., Zhang, M., Masvie, A. E., & Baumeister, R. (2021). Social exclusion reduces happiness by creating expectations of future rejection. *Self and Identity*, 20(1), 116-125. DOI: 10.1080/15298868.2020.1779119
- Smith, P. K., Jost, J. T., & Vijay, R. (2008). Legitimacy crisis? Behavioral approach and inhibition when power differences are left unexplained. *Social Justice Research*, 21(3), 358-376. DOI: 10.1007/s11211-008-0077-9
- Smith, P. K., & Magee, J. C. (2015). The interpersonal nature of power and status.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3(1), 152-156. DOI: 10.1016/j.cobeha.2015.04.007
- Tai, K., Zheng, X., & Narayanan, J. (2011). Touching a teddy bear mitigates negativ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to increase prosocial behavior.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6), 618-626. DOI: 10.1177/1948550611404707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56-66. DOI: 10.1037/0022-3514.92.1.56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2). Social exclusion causes self-defe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606-615. DOI: 10.1037/0022-3514.83.3.606
- Van Kleef, G. A., Homan, A. C., Finkenauer, C., Gündemir, S., & Stamkou, E. (2011). Breaking the rules to rise to power: How norm violators gain power in the eyes of other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5), 500-507. DOI: 10.1177/1948550611398416
- Van Vugt, M., Hogan, R., & Kaiser, R. B. (2008). Leadership, followership, and evolution: Some lessons from the past. *American Psychologist*, 63(3), 182-196. DOI: 10.1037/0003-066X.63.3.182

- Weick, M., & Guinote, A. (2008). When subjective experiences matter: Power increases reliance on the ease of retriev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6), 956-970. DOI: 10.1037/0022-3514.94.6.956
- Yarkin, K. L., Harvey, J. H., & Bloxom, B. M. (1981). Cognitive sets, attribution,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243-252. DOI: 10.1037/0022-3514.41.2.243

원고접수: 2022.01.10

수정접수: 2022.02.11

게재확정: 2022.02.14

Appendix

<실험 1 국제봉사기구 시나리오 : 고권력-고지위 조건>

국제봉사기구 사무장 DN

DN은 국제봉사기구의 사무장이다. 그는 조직 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강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DN의 업무 중 하나는 조직의 자금 및 인력배분을 결정하여 지시하는 것이다. DN의 판단에 따라 해외과건 인력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 DN은 최근 남미 지부에 대한 지원금을 줄여 중동 지부에 지급했다. DN의 직책은 사무장이지만 사실상 최고경영자인 셈이었다.

DN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DN은 국제봉사기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했고, 그 신념에 맞추어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 담당 사업의 회계결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직접 봉사활동을 할 때도 헌신적이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설립한 작은 장학재단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했다. DN은 인류애와 생명존중을 실천한 사람으로 평가 받았고, 동료와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존경 받았다.

이 국제봉사기구에서는 매년 우수 직원들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수상식과 화려한 축하파티를 개최한다. 올해도 수상자가 선정되어 구성원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은 회계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DN이 대신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며칠 뒤 DN은 포상금 예산에 착오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결국 수상자들 중 한 명을 탈락시켰다.

<실험 2A 국제봉사기구 시나리오 : 저권력-공개 조건>

국제봉사기구 사무장 MS

MS는 국제봉사기구의 사무장이다. 하지만 사무장 직책은 유명무실하여 단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뿐 조직의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못한다. 조직의 자금 및 인력활용은 이사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며, MS는 단순히 결정된 사항을 따르기만 할 뿐이다. 최근 남미 지부에 대한 지원금 삭감 역시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며, MS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리만을 진행했다.

이 국제봉사기구에서는 매년 우수직원들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수상식과 화려한 축하파티를 개최한다. 올해 역시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구성원들의 많

은 축하를 받았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은 회계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MS가 대신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MS는 공개적으로 업무를 인수받았고, 직원들 모두 MS가 우수직원 선정 담당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칠 뒤 MS는 우수직원 선정에 오류를 발견했고, 이미 수상사실이 공개된 사람들 중 한 명을 탈락시켰다. 직원 포상은 예민한 문제라 관련 내용이 공개되었고, 그 사람의 탈락을 결정한 사람이 MS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실험 2B 국제봉사기구 시나리오 : 저지위-익명 조건>

국제봉사기구 사무장 JB

JB는 국제봉사기구의 사무장이다. 그는 항상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JB는 국제봉사기구에서의 일은 단순히 직업으로만 생각했고,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서류조작을 통해 구호활동 자금을 착복하기도 했고, 직접 봉사활동을 할 때는 불성실하여 힘든 일을 피하기 일쑤였다. 또한 편법으로 사설 복지기관을 세워 정부지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JB는 이기적이고 저급한 사람으로 평가 받았고, 동료와 이웃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이 국제봉사기구에서는 매년 우수직원들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수상식과 화려한 축하파티를 개최한다. 올해 역시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구성원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은 회계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JB가 대신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JB는 임시로 업무를 맡았고, 직원들 어느 누구도 JB가 우수직원 선정담당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JB는 우수직원 선정에 오류를 발견했고, 이미 수상사실이 공개된 사람들 중 한 명을 탈락시켰다. 직원 포상은 예민한 문제라 모든 내용은 보안상 기밀이었으며 관련 문서는 전체 파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탈락을 결정한 사람이 JB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고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었다.